

ICT 산업 HOT CLIPS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2020. 12. 10 Vol. 58



2020. 12. 10

Vol. 58



ICT산업 Brief

- 기고문 | 4차 산업혁명과 개인맞춤 시장, 제조 벤류체인의 변화
- ICT Espresso

정보통신방송사업 Scrap

- 정보통신방송사업 'ZOOM IN'
- 인포그래픽 | KCA·장항남 전파체험관 개관
- 알림 Talk | KCA 일정안내
- 캘린더 | ICT 유관기관 일정 공유
- Invitation

Job Talk

- 일자리 정책 및 뉴스
- 수행기관 채용정보
- 사업자 일자리 매칭



2020. 12. 10

Vol. 58



CONTENTS

01 ICT산업 Brief

기고문

4차 산업혁명과 개인맞춤 시장, 제조 벤류체인의 변화

ICT Espresso

02 정보통신방송사업 Scrap

정보통신방송사업 'ZOOM IN'

(주)유니와이드테크놀러지/(주)아임클라우드

인포그래픽

KCA·장황남 전파체험관 개관

알림 Talk

캘린더

ICT 유관기관 일정 공유

Invitation

발행처 한국방송통신진흥원

발행일 2020년 12월 10일

편집 기금성과평가팀

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0(빛가람동)

한국방송통신진흥원

디자인 승일미디어그룹 주식회사

03 Job Talk

일자리 정책 및 뉴스

수행기관 채용정보

사업자 일자리매칭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맞춤은 확실한 메가트렌드가 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과 개인맞춤 시장, 제조 밸류체인의 변화



글 | 김영훈 포스코 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개인맞춤 시장은 앞으로 계속 확대될 것이다. 현대의 소비자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스타일을 요구하고 개인 맞춤제품에 평균 20% 이상의 가격을 더 지불할 의사가 있기 때문이다 (Deloitte,2015). 고가시장의 형성으로 생산자들은 생산모드의 잣은 변경에 따른 원가상승 부담을 극복할 수 있다. 3D 프린팅,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맞춤은 확실한 메가트렌드가 될 것이다.

1. 시장구조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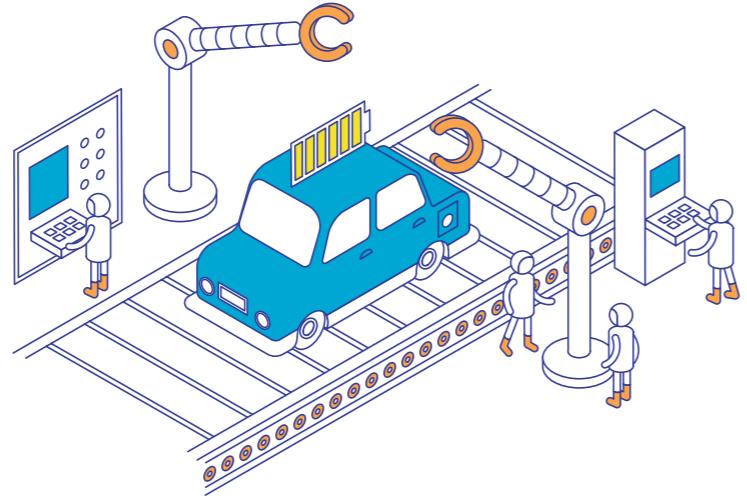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개인맞춤(Personalized Product) 시장이 부상하고 있다. 구글은 글로벌 패션업체인 H&M과 스마트폰으로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분석하여 개인 맞춤형 드레스를 제작하는 ‘Coded Couture’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아디다스는 ‘Speed Factory’를 통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개인맞춤 신발 제작을 시도하고 있다. 화장품 기업 로레알은 2020년 CES를 통해 ‘페르소’라는 개인맞춤 화장품 기기를 선보였다. 소비자가 아침에 스마트폰 앱으로 얼굴을 스캔하면 AI가 피부상태, 대기질, 공해, 트렌드 등을 분석하고 ‘페르소’는 최적화된 스킨로션을 제조한다. 삼성전자는 ‘Bespoke’라는 냉장고 브랜드를 통해 맞춤가전 생산을 본격화하였다. Bespoke 냉장고는 가족 수, 식습관, 라이프스타일, 주방 형태에 따른 나만의 제품 조합이 가능하고 색상, 재질 등 나만의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다. 미국의 로컬 모터스는 고객의 주문대로 차량을 디자인하고 3D 프린팅 기술을 통해 개인 맞춤형 전기자동차를 제작한다. 제약업계에서는 인간 고유의 유전체 정보를 빅데이터 기법으로 해석해 환자별로 맞춤치료와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생산방식의 변화

개인맞춤 시장이 확대되면서 B2C(Business to Customer)와 B2B(Business to Business) 분야도 생산방식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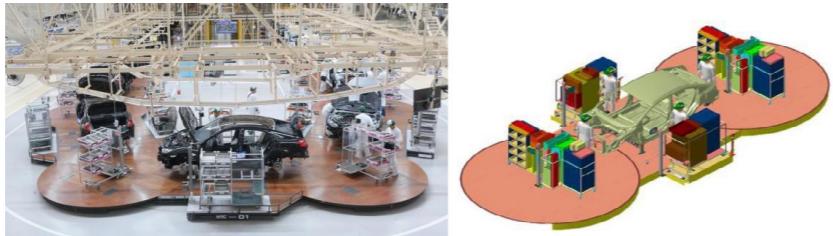
B2C 분야에서는 컨베이어 벨트 기반의 고정생산 방식이 줄어들고 셀 생산(Cell Production) 방식이 확대될 것이다. 셀 생산이란 대량분업 생산에서 필수적이었던 컨베이어 벨트 없이 생산공정의 처음부터 끝까지 숙련 작업자가 책임을 지고 조립하는 자기 완결형 생산방식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협동로봇(Collaborate Robot) 또는 무인 운반차(AGV; Autonomous Ground Vehicle) 등이 도입되면서 기계와 인간의 효율적인 협업체계가 확대되며 생산성이 개선되고 노동가치가 향상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컨베이어 생산으로 대표되는 자동차 산업까지도 침투하고 있다. BMW는 2013년 미국의 스파티번버그(Spartanburg) 공장 조립라인에 미스 샬롯(Miss Charlotte)이라는 협업로봇을 투입했다. 초기에 로봇은 차량 문에 방음 장치를 설치하는 역할만 수행했지만 최근에는 차축 트랜스미션 어셈블리 라인까지 응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혼다자동차는 세계 최초로 자동차 셀 생산방식인 ARC(Assembly Revolution Cell)를 태국 공장에서 시도하였다. 컨베이어처럼 움



직이는 유닛에 자동차 한 대를 위한 부품을 적재하고 4명이 작업자가 한 팀이 되어 탑승하면 차체와 함께 이동하면서 조립하는 시스템이다. 한 라인에서 다수 모델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산성은 기존 컨베이어 벨트 방식보다 10% 이상 개선된다. 다임러 그룹은 'ARENA 2036' 프로젝트를 통해 컨베이어 생산방식을 완전히 대체하는 적응형 자동차 생산방식을 연구하고 있다. 독일 자동차 산업 150주년이 되는 2036년까지 임무를 완수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보쉬, 프라운호퍼 연구소, 독일우주항공센터 등 다양한 사업자가 참여하여 새로운 개념의 부품소재 공급 및 맞춤생산 방식을 테스트 중이다.

[그림 1] 혼다의 자동차 셀 생산방식



*출처: 포스코 경영연구원(2017)

개인맞춤 시장의 확대로 B2C 업체를 고객으로 두고 있는 B2B 산업도 변화가 예상된다. B2C의 생산방식이 셀 방식으로 전환된다면 B2B 업계는 단품종 소량 주문이 증가하고 원가상승 압력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플라스틱, 철강, 알루미늄 등 B2B 소재 기업들은 다중소재(Multi Material), 디지털 고로(Digital Furnace) 등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새로운 생산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

다중소재 전략이란 자동차 등 소재 사용업체가 철강과 같은 특정소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철강, 알루미늄, 플라스틱 등 다양한 소재를 조합하여 최적의 기술적, 경제적인 성능을 제품에 구현하는 것이다(포스코 경영연구원, 2018). 이를 위해서 B2B 업계는 복수소재 간 상호 결합을 용이하게 하는 접합 및 체결기술 뿐만 아니라 부품설계 및 조립 전 시뮬레이션, 3D 프린팅을 활용한 맞춤부품 제작 등 다양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개발 중이다.

단품종 소량 주문에 대응하기 위해 AI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도 도입 중이다. 전통적 굴뚝산업인 철강분야에서도 디지털 트윈 및 AI 기술을 활용하여 블랙박스(Blackbox) 영역이었던 상공정 고로(Furnace)의 상태변화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스마트 고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포스코는 포항 제2 용광로에 AI를 접목하였고 아르셀로미탈은 체코 Ostrava 제3 용광로의 쇳물온도 및 연소상태를 사물인터넷(IoT) 센서로 수집하고 AI 분석을 통해 최적의 제철(Iron Making) 솔루션을 적용 중이다.

3.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과거 산업혁명의 역사를 살펴보았을 때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개인맞춤 시장은 2025년부터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역사적으로 산업혁명을 촉발시킨 동력원이 발명되고 생산구조 및 일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기까지는 약 20년이 소요되었다. 개인맞춤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대표기술인 디지털 트윈이 2010년경에 부상했음을 감안한다면 개인맞춤 시대는 2030년에 본격화될 것이며 시장은 2025년부터 확대될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첫째, 맞춤생산을 위한 스마트 팩토리와 서비스 플랫폼의 개념설계 및 기술개발에 집중해야 한다. 고객이 자신이 원하는 제품을 정확하게 요구하기 위해서는 FaaS (Factory as a Service)라는 개방형 플랫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맞춤 팩토리 및 팩토리들을 인터넷으로 연결하고, 고객주문, 온디맨드 엔지니어링, 부품조달, 완제품 유통에 이르는 제조 프로세스 기술이 필요하다(한국 ICT 융합 네트워크, 2019). 아직 이 분야는 시장 주도자가 없기 때문에 테스트베드 등을 통해 기술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빠르게 시장을 선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개인맞춤이라는 생산방식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스타트업과의 협력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기존 대기업 내부의 혁신만으로는 원가절감 기반의 혁신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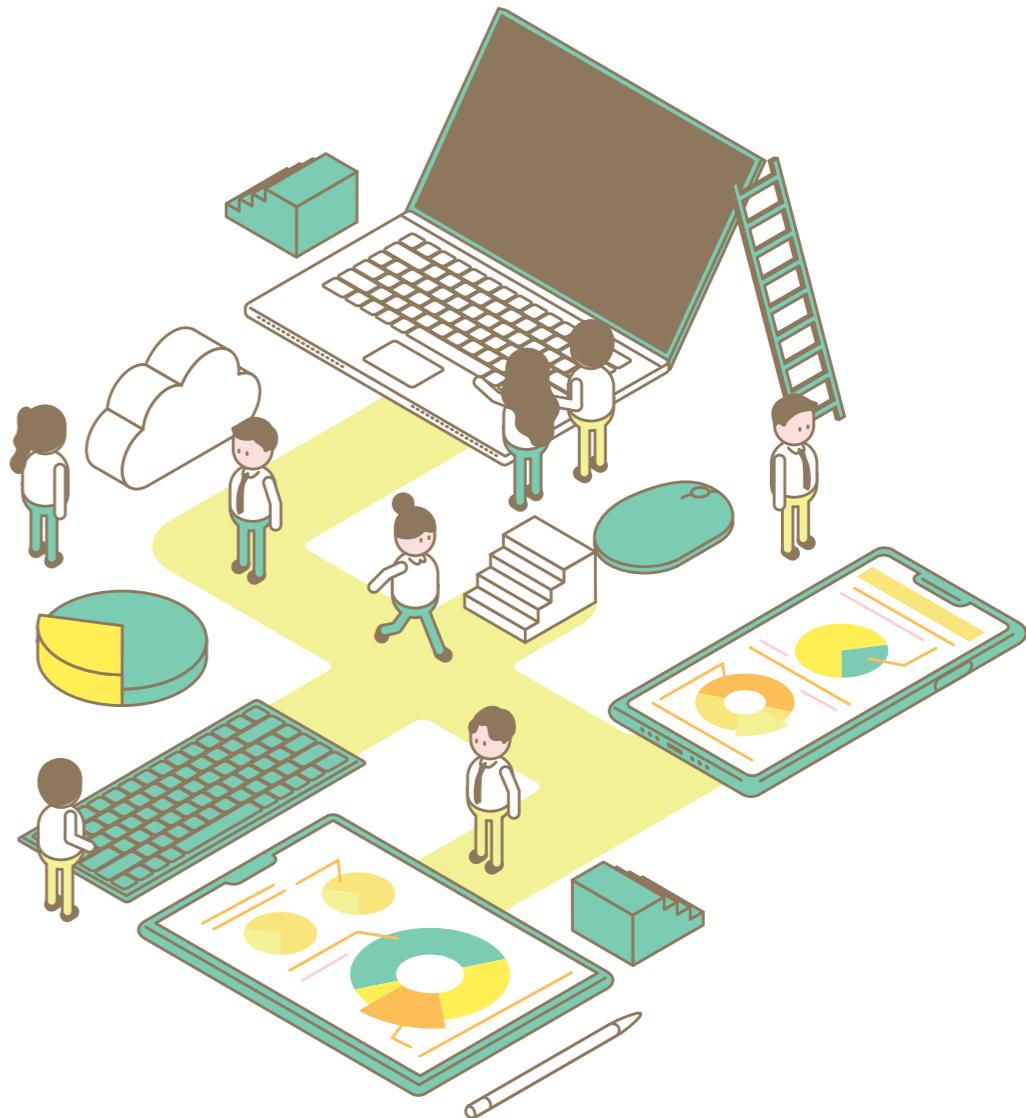
이 반복되기 때문에 생산방식의 근본적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혁신 스타트업과 생산과 관련된 데이터를 공유하고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솔루션을 개발하는 협업체계가 필요하다. 스타트업과 공유가 용이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팩토리 건설 및 운영모델이 필요할 수도 있다.

셋째, 개인맞춤 시대에 확실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을 선점해야 한다. 개인맞춤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개별 소비자의 다양한 데이터가 하나의 상품이 되어 유통되고 이러한 데이터가 전문 가공업체에 의해 분석되면서 새로운 제품으로 재개발되고 다시 소비자에게 추천되는 선순환 구도가 필요하다. 개인맞춤 시대의 핵심자산인 데이터를 수집하는 플랫폼을 뛰어넘어 데이터 분석 및 가공을 위한 외부 전문가, 혁신적인 벤처들과 협업하기 위한 데이터 유통 및 공유 플랫폼도 준비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1] "Made-to-order: The rise of mass personalization", Deloitte, The Deloitte Consumer Review, 2015
- [2] "4차 산업혁명이 유발한 新 Biz 양상", 포스코 경영연구원, 이슈리포트, 2017
- [3] "다중소재 전략의 시대가 온다", 포스코 경영연구원, 이슈리포트, 2018
- [4]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 한국 ICT융합 네트워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용역과제, 2019

Personalized Product



ICT ESPRESSO

콘텐츠

“화재·지진대피 가상현실로 배워요”…비대면 콘텐츠 보급

행정안전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비대면이 일상화한 시대에 맞춰 온라인 기반의 상방향 안전교육 콘텐츠 제작을 대폭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원문보기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0/11/1226147/>

바이오헬스

언택트 시대 진입…주목 받는 ‘비대면 의료’

4차 산업혁명과 함께 헬스케어 산업에도 IT가 접목되며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언택트 사회에 진입하면서 비대면 의료산업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원문보기

<http://www.joseilbo.com/news/htmls>

클라우드

인터넷은 ‘라떼’…이젠 클라우드 시대

‘클라우드 스타트업이 코로나 팬데믹을 연료 삼아 투자의 파도 위에 올라탔다. 마치 스테로이드를 맞은 것 같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최근 분석이다.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economy/mint>

디바이스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코로나19 백신 보급에 활약한다

코로나19 백신 보급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이 크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병·의원, 웨어러블 기기 등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활용하는 만큼 백신 접종 필요 여부와 부작용 가능성을 정확하고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문보기

<http://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4409>

IoT

AI와 IoT로 침묵의 살인자 ‘도로 살얼음’ 잡는다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면서 빙판길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 특히 도로 살얼음으로 인한 사고가 매년 반복되고, 대형 사고로 이어지면서 운전자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원문보기

<https://www.hankookilbo.com/News>

인공지능

인공지능이 결정하는 시대, ‘AI 윤리기준’ 필요성 대두

인공지능(AI)의 발전이 눈부신 속도로 이뤄지면서 ‘AI 윤리기준’을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는 데이터를 분석해 예측·추천·분류하는 방식으로 결과를 도출하는데, 현재 이 결과물을 의사결정에 적극 반영하는 산업계가 많아지기 시작했다.

원문보기

<http://www.koit.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245>

SW

소프트웨어기술자 올해 하루 평균 34만원 벌었다

2020년 소프트웨어(SW) 기술자의 평균임금은 일 평균 34만 3,025원으로 전년 대비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월 평균 근무일수는 20.9일이었다.

원문보기

<https://www.sedaily.com/NewsView/1ZALY895Y1>

빅데이터

빅데이터로 ‘스마트 암 치료제’ 만든다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대(UCSF)와 프린스턴대 연구팀은 두 개의 새로운 논문에서 ‘스마트(smart)’한 세포치료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완 전략을 제시했다.

원문보기

<https://www.scientetimes.co.kr/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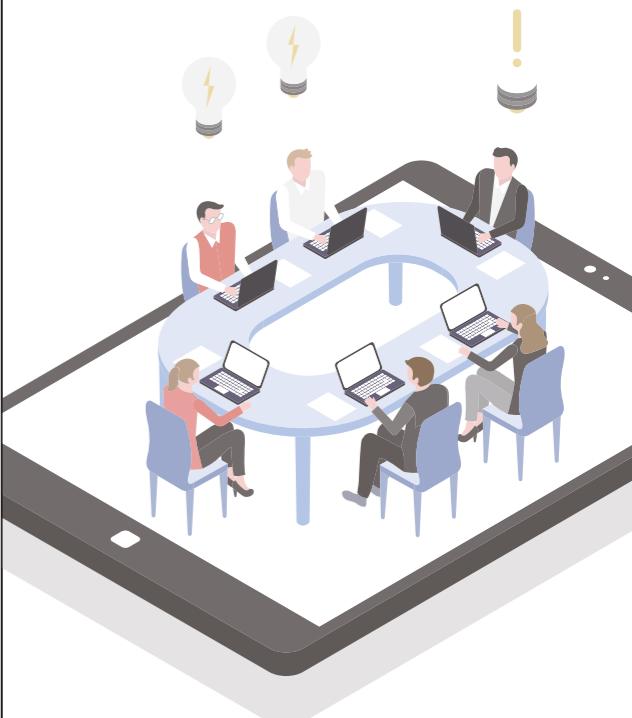
네트워크

영, 내년 9월부터 화웨이 5G 통신장비 도입 전면 금지

영국 정부가 내년 9월부터 화웨이의 5세대 이동통신장비 신규 설치를 전면적으로 금지한다. 앞서 영국은 2027년말까지 모든 화웨이 5G 장비를 자국 내 네트워크에서 제거하기로 한 바 있다.

원문보기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



ICT
ESPRESSO

IT 하드웨어 토종 제조업체 대한민국 서버/스토리지의 자존심을 세우다

(주)유니와이드테크놀러지
우종운 대표

기업현황

- CEO : 우종운 대표이사, 조한승 대표이사
- 업종 : 컴퓨터서버, 스토리지 제조,
 소프트웨어개발, 시스템관리용역
- 설립연월 : 2008년 12월
- 홈페이지 : www.uniwide.co.kr

일반현황

- 수행기관명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내역사업명 : HPC이노베이션허브
- 참여사업명 : 고성능컴퓨팅 성능 시험 지원,
 운영실적증명



스토리지 및 서버 시장은 고성능 컴퓨터의 등장과 더불어 빅 데이터 산업의 발전, 데이터 센터의 구축 등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요한 산업 분야로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고성능 컴퓨팅 응용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은 대부분 외국 제품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산업적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수입 의존도 및 기술 종속 상황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유니와이드테크놀러지는 1992년 최초 설립해 서버, 스토리지 및 각종 솔루션 부문에 매진해온 IT전문 기업으로, IT 하드웨어 토종 제조업체로서 자존심을 지키고 있다.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서버·스토리지·솔루션 등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이에 대한 끊임없는 투자를 통해 고객 요구에 누구보다 빠르게 대응하고 있으며, 다양한 제품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IT시장에서 글로벌 벤더들과 당당하게 경쟁하며,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해가고 있다.

국내 업체로서 양적·질적으로 기술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기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전체 직원의 40% 이상을 엔지ニア로 구성하고 있다.

서버, 스토리지 제조와 화이버 채널을 통한 망 연계 기술을 보유하고 차별화된 제품을 선보이며 세계 일류 회사들과의 경쟁에서 선두기업으로 자리 잡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HPC이노베이션허브' 사업 통해 제품 신뢰성 높여

유니와이드테크놀러지는 'HPC이노베이션허브' 사업을 통해 컴퓨팅 장비의 신뢰성 검증, 사업화 지원, 국내 직접생산 기업 장비 기반 HPC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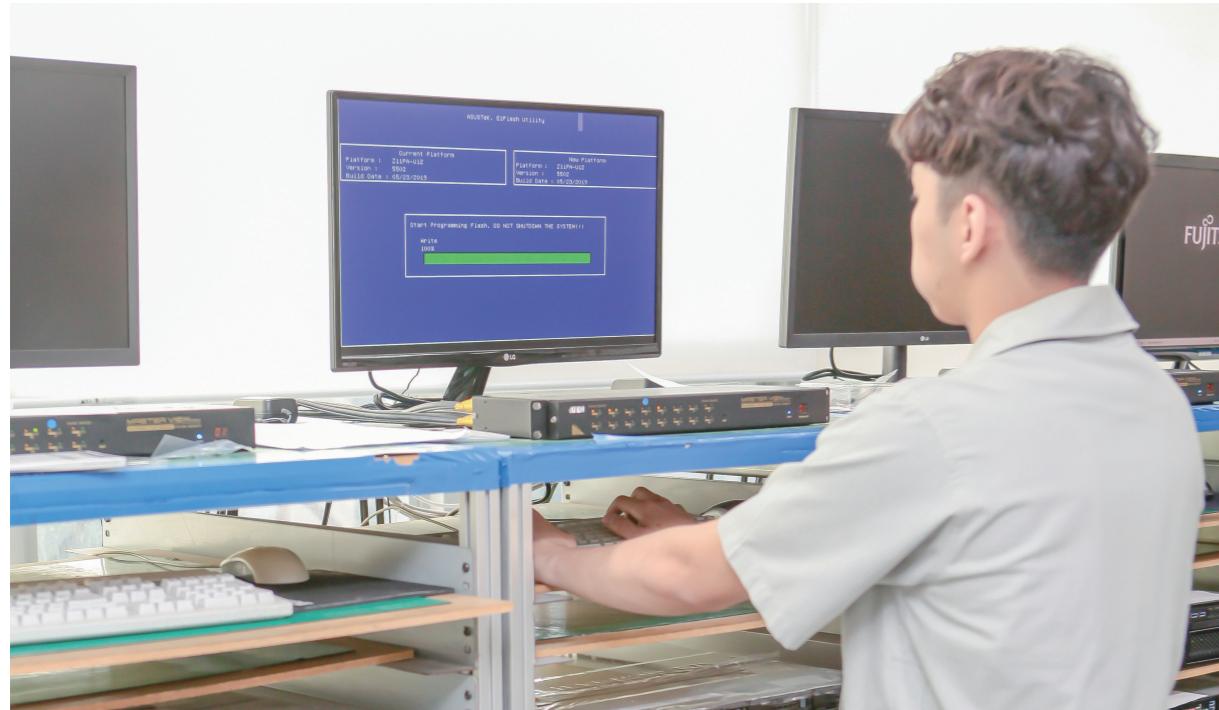
2017년 'HPC 신제품/기술 사업화 지원'으로 GPU 서버의 시장출시를 시작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인 신제품 서버 출시와 인증 지원을 통해 다양한 신모델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공공조달시장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처음에는 사업과 관련한 신제품 출시 후 상품성이나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공공기관에 납품을 준비할 때 입찰규격 검토 시 TPC-C에 근거한 성능 수치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능 인증시험 비용이 높고 인증 절차가 어려워 인증 시험 시도 자체가 부담스러웠습니다. ICT 기금사업 참여로 인해 비용 지원 및 시험에 대한 절차(인증 대행업무)가 간소화 되었습니다." 우종운 대표이사의 말이다.

● 제품 신뢰도 확보, 매출 증가·사업 수주로 이어져

제품의 신뢰도 확보는 매출로 연결되며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17년 HPC이노베이션허브의 HPC 신제품/기술 사업화 지원을 받아 UNI RB326H-GPU서버를 출시하고 2018년에 해당모델은 8,000만 원의 매출이 발생했다. 또한 GPU서버의 생산능력과 기술력을 인정받아 NVIDIA KOREA Local ODM 업체로 선정되었다.

2018년에는 TPC-C 공인 성능 검증 지원을 받아 충북교육청



단재교육연수원, 한수원 한빛 원자력본부, 용인시청, 광주시 청, 충청남도청,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문화체육관광부, 경북교육청 정보센터 등 다수의 기관을 대상으로 제품 수주에 성공했다.

지난해에는 GPU 서버 클러스터 제품에 대해 슈퍼컴퓨터 공인 성능 측정도구인 Linpack을 사용한 성능 검증과 국제공인 고성능컴퓨팅 성능검증을 통해 제품의 안정성과 성능을 확보했다.

더불어 고성능컴퓨팅 서버에 대해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12개월 간 가용률 100%, 대규모 계산처리 57건, 장애발생 0건으로 운용실적증명을 받아 안정성과 신뢰성이 검증된 제품으로 사회보장정보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

교 외 다수 의 기관에 상품을 판매했다.

● 국제공인인증 통해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서

올해는 신규 서버 모델에 대한 국제공인인증(TPC-C, SPEC Power) 획득 추진을 통해 신뢰성이 검증된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확보하고 있다.

더불어 베트남 학내망 운용서버로 유니와이드테크놀러지의 워크스테이션의 성능평가시험을 완료하였다.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공인 시험·인증을 통한 공신력 있는 제품 성능수치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글로벌 외산 벤더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외

산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상태에서 국산 제조 서버로서의 제품 신뢰성 확보를 통해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유니와이드테크놀러지가 이러한 성과에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와 한국컴퓨팅산업협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다. 또한 국내 공공기관에서 컴퓨터 서버를 의무 구매하도록 유도한 점도 도움이 되었다.

SK하이닉스, LG U+ 등 기존 고객사에 성능 시험인증을 통한 중형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공략한 것도 성공의 요인이었다.

사업의 성과로 인해 2019년 1월 1일 36명이던 직원의 수가 2020년 3월말 기준 49명으로 증가했다. 고용창출의 결과로 2019년, 2020년 연속 고용노동부로부터 ‘청년 친화 강소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019년 12월 16일에는 구로구로부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았다.

이에 그치지 않고 직원들의 평생교육에 힘쓰고 있으며, 내일채움공제, 유연근무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등의 다양한 직원복지를 통해 정년, 계약직, 정리해고가 없는 회사의 3원칙을 실천 중이다.

● 외산 벤더 능가할 경쟁력 확보, 주요 부품 국산화 진행

유니와이드테크놀러지는 사업에 참여하며 신뢰성 있는 성능 자료를 통한 외산벤더와 경쟁력을 확보했다. 공공기관에 신뢰성 있는 성능 자료 제시로 영업 기회 확보했으며 국제 공인 인증을 통한 국산 장비에 대한 인식개선에 기여했다. 제품의 사업화에 있어서의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확립할 수 있었다.

우종운 대표이사는 사업이 향후 유니와이드테크놀러지에 미칠 영향에 대해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해외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글로벌 외산 벤더사와 동등한

경쟁력을 확보한 만큼 앞으로의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제품의 사업화에 있어 다양한 마케팅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기회도 얻었다. 추정 성능치가 아닌 공인 시험을 통한 정확한 성능치 자료를 확보하였으며 국제공인 시험 제품의 성능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파생될 새로운 모델 개발에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유니와이드테크놀러지는 기존의 메인보드 자체 개발의 기술력을 토대로 컴퓨터 서버의 주요 부품의 국산화를 추



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한국컴퓨팅산업협회 회장사로서 중소기업들의 상생을 통해 글로벌 벤더사와 경쟁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자사의 모델을 통해 서버 성능 공인 인증, 스토리지 성능 공인인증 등의 다양한 국제공인 성능 인증 진행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제품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자체 제품 및 주요부품 국산화를 통해 국내 시장 확산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미니인터뷰”

Q1. 이번 사업 참여로 인한 성과는 무엇인가요?

“공인 시험·인증을 통한 공신력 있는 제품 성능수치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검증된 성능수치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했으며 민간, 공공 기관에서 요구하는 신뢰성 있는 성능 근거 자료 제출을 통해 다양한 영업 기회를 확보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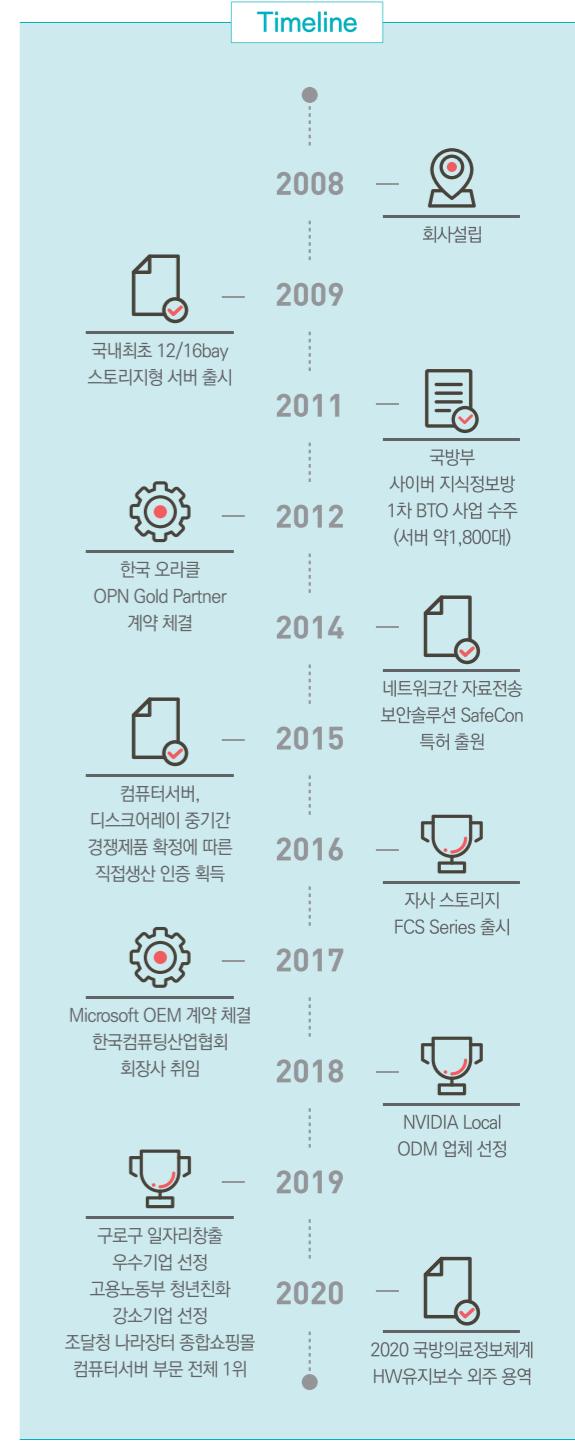
Q2.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인가요?

“국내 공공기관이 컴퓨터 서버에 대해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중소기업간 직접생산에 의한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더불어 다양한 기업에 성능시험을 통한 중형 프로젝트에 제안하고 공략한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핵심성과

- GPU서버 NVIDIA KOREA Local ODM 선정
- 2019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컴퓨터서버 판매 1위
- 자체 Main Board 탑재 서버 출시

Timeline





지역화폐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돋다

(주)아임클라우드
이두식 대표

기업현황

- CEO : 이두식
- 업종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설립연월 : 2014년 4월
- 홈페이지 : www.imcloud.co.kr

일반현황

- 수행기관명 :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 내역사업명 : 빅데이터 센터 육성 및 플랫폼 구축
- 참여사업명 : 혁신성장을 위한 지역경제
빅데이터플랫폼



약 5년 전부터 시작된 빅데이터 산업은 현재 더욱 세분화된 분석방법과 고도화된 데이터 분석 기술을 이용한 지능정보, 인공지능 사업으로 확산되고 있다.

CPU, 스토리지, 메모리 등 컴퓨터의 하드웨어의 가격이 낮아지면서 정보 저장 및 처리 비용 또한 저렴해졌다. 이렇게 모인 데이터들에서 비즈니스적인 가치를 찾으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소셜미디어, 스마트폰, IoT(사물인터넷), 웨어러블 기기의 확산으로 인해 ICT분야에서 빅데이터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국내외 기업들 역시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업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시장 역시 급성장 중이다.

2014년 설립된 아임클라우드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이 미래 기술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술 회사로 출발했다.

다수의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데이터 처리 사업을 통해서 노하우를 축적하고 최근에는 인공지능 챗봇 등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 Hadoop 기술 기반의 빅데이터 처리 플랫폼 구축

아임클라우드라는 회사명은 미래에는 대부분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처리될 것으로 예측하고 만들려고 했다. 앞으로 다양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클라우드에 구현하여 다양한 서비스와 기술을 제공하는 회사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이다.

때문에 회사 인력의 상당 부분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잘 이해하는 개발자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에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과 관련된 정부 R&D사업에 다수 참여하며 실력을 키우고 있다.

아임클라우드의 핵심 기술은 오픈소스 Hadoop 기술 기반의 빅데이터 처리 플랫폼 구축 기술이다. 이 기술을 활용하여 방대한 양의 빅데이터를 빠른 처리 성능과 품질을 유지하면서 데이터 수집, 가공, 저장처리를 할 수 있다.

또 다른 기술은 인공지능의 딥러닝(Deep Learning) 기술을 이용한 챗봇(Chatbot)이다. 자체적인 챗봇 소프트웨어 엔진과 손쉽게 챗봇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는 챗봇 빌더 시스템 기술을 가지고 있어 콜센터 또는 다양한 문의를 자동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한다.

최근에는 데이터 3법과 관련된 기술로 민감정보에 대한 데이터 비식별 처리 기술 개발을 완료했다. 해당 기술은 빅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민감한 개인정보등을 비식별처리하고, 이 상태에서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다.



지역화폐 사용 관련 빅데이터 수집,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

아임클라우드는 '빅데이터 센터 육성 및 플랫폼 구축' 사업 중 경기도청이 주관기관인 '혁신 성장을 위한 지역경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사업을 통해 전제적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센터의 데이터를 가공 및 유통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 있다.

이두식 대표는 사업 참여 계기에 대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은 실제 다양한 사업에 활용되어야 가치가 발휘된다. 특히 ICT사업 중에 아임클라우드가 가진 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의미있는 결과를 낼 수 있다. 또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실생활에 적용하고 이를 통해 서비스와 기술을 고도화할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어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했다.

사업은 경기도청과 아임클라우드가 전체적인 플랫폼 구축 총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외에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주), 코나아이(주),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일자리재단,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한국기업데이터(주), (주)더아이엠씨, 국토연구원, 한양대학교 컨소시엄(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주)오피스넷),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컨소시엄(한국생산기술연구원, (주)와이즈인컴퍼니, (주)대연씨엔아이)이 참여하고 있다.

경기도는 우리나라 인구의 약 1/4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만큼 많은 지역경제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이다. 특히 다수의 거주자들이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있다. 지역화폐 사용 시 얻어지는 사용자 정보, 결제 데이터, 신용 정보, 기업 정보, 소셜트렌드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기업, 스타트업, 기관에 분석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목적이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는 상권분석 결과 또는 지역경제와 깊은 관련이 있는 다양한 소상공인에게 제공한다.

이러한 사업은 많은 데이터 수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임클라우드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 정제, 가공 처리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또한 데이터 분석 및 데이터를 활용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더불어 데이터를 무료 또는 유료로 구입할 수 있는 데이터 유통거래 서비스를 오픈했다. 2020년 현재 2년차 사업을 진행 중으로 3년 차 사업이 끝난 이후에는 자생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계획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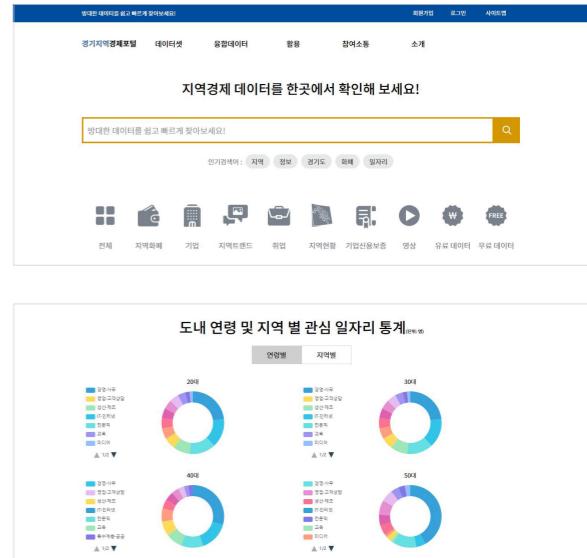
경기도-컨소시엄의 적극적 참여, 사업 성공의 열쇠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전염병 사태는 소상공인과 지역경제에 매우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아임클라우드가 구축한 센터를 통해 분석된 데이터들은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주는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2020년 2월에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는 데이터 유통 거래 수익의 일부를 배당금으로 지금하기도 했다. 지역화폐 결제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용자에게도 데이터 주권이 있다는 판단하에 세계 최초로 데이터 제공에 대한 배당을 시행한 것이다.

사업은 앞으로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다수의 기업과 기관에 그 결과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러한 센터의 운영은 결과적으로는 소상공인의 사업과 지역경제가 크게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국내 최대 규모의 지역화폐 데이터를 중심으로 이미 보유 중인 기업정보나 지역 관련 정보, 일자리 정보의 가공·융합·분석을 통해 데이터 유통 서비스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



는 최적의 환경을 구축함으로서 혁신 서비스 발굴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사업은 컨소시엄을 구성한 공공기관, 기업들 간의 원활한 협조를 바탕으로 가능했다.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기술과 데이터를 빠르게 융합하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협의체 구성을 통해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었다.

경기도의 적극적인 사업 진행도 성공의 요인이었다. 주관기관의 관심과 노력으로 개별적인 참여 기관들이 자체적인 기술과 데이터를 제공하여 핵심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공공의 목적도 사업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렇게 모인 데이터는 향후에 커다란 가치를 가지고 참여 기관들이 공공의 목적이 든 기업의 사업적인 목적이든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기에 그만큼 노력의 가치가 있었다.

● 지역경제 데이터 수집, 혁신 서비스 발굴의 밑거름

지역경제 관련 데이터는 그 양이 많아질수록 이를 활용한 혁신적인 서비스가 탄생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많은 스타트업들이 사업을 통해 생산되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서비스와 사업에 도전할 기회를 얻을 것이다. 향후에는 다른 지자체에도 확산되어 우리나라의 지역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아임클라우드는 사업을 통해서 방대한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직접 운영하면서 데이터의 품질, 민감정보 비식별처리,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운영 등 관련 기술에 대해 노하우를 축적하고 이를 통해 회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회사로 출발한 아임클라우드는 현재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회사로 성장하고 있다. 이번 사업을 계기로 데이터 처리 및 플랫폼 구축에 우수한 회사로 발전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적인 데이터 구축 사업과 B2C서비스 사업에도 관심을 가지고 미니프로젝트 또는 파일럿 R&D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람의 생활을 크게 변화 시킬 수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목표로 정진 중이다.

“미니인터뷰”

● Q1. 이번 사업 참여로 인한 성과는 무엇인가요?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소상공인과 지역경제가 매우 중요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분석결과는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주는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활용되고 있으며 2020년 2월에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는 데이터 유통 거래 수익의 일부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기도 하였습니다. 지역화폐 결제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용자에게도 데이터 주권이 있다는 판단 하에 세계최초로 데이터 제공에 대한 배당을 시행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더 많은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유지 운영하여 다수의 기업과 기관에 분석결과를 제공하고 결과적으로는 소상공인과 지역경제가 크게 활성화 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Q2.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성공비결은 무엇인가요?

“컨소시엄을 구성한 공공기관, 기업들간 원활한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기술과 데이터를 빠르게 융합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공공기관과 기업이 같이 일하는 것은 여러 가지 다른 문화와 일 처리하는 방식으로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기 어려울 수도 있었으나 협의체를 구성하고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핵심성과

- 국내 최고 수준의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실적
- 클라우드 기반의 인공지능 챗봇 엔진 개발
- 빅데이터 민감정보 비식별 솔루션 개발

Timeline

2014. 04



주식회사
아임클라우드 설립

2015. 09



삼성벤처
투자 유치 (2억)

2015. 10



엑셈(코스닥상장사)
투자 유치 (10억)
K-Global 300
업체 선정



2016. 11

인공지능 챗봇
“Addie” 제품 출시

2017. 03



연세의료원
헬스케어 인공지능
공동개발 협약



2017. 11

SW산업발전
국무총리상 수상

2018. 01



창조경제혁신센터
우수기업
중소기업장관상 수상



2019. 05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사업 선정
“지역경제
빅데이터 플랫폼”

2019. 05

빅데이터 민감정보
비식별 솔루션
“SDGUARD” 제품 출시

눈으로 보고, 듣고 체험하는 생활 속 전파

KCA·장황남 전파체험관 언택트 개관식 개최!



눈으로 보고, 듣고 체험하는 '생활 속 전파'
KCA·장황남 전파체험관
언택트 개관식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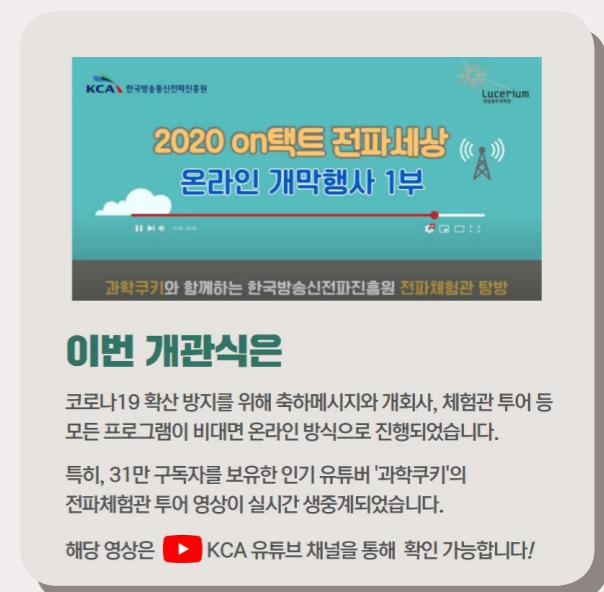
전파체험관은
KCA가 수행하는 무선국검사 전문장비와 선박·항공·이동통신 장비,
40여년 동안 수집해온 장황남 박사의 정보통신 장비 기증품
1천여 점으로 꾸며져 있어요~



전파체험관 체험부스



학생들이 전파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스부호 체험, 항공기 조종 및 통신 체험, 행성탐사 체험 등
각종 체험공간도 마련돼 있어요~



이번 개관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축하메시지와 개회사, 체험관 투어 등
모든 프로그램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31만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유튜버 '과학쿠기'의
전파체험관 투어 영상이 실시간 생중계되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KCA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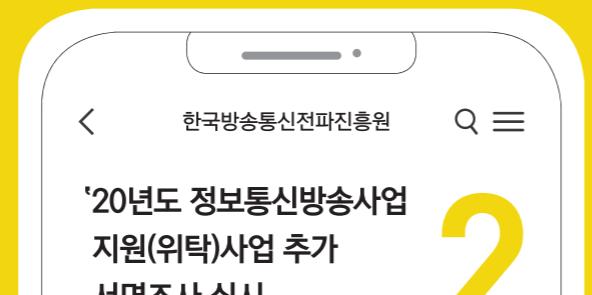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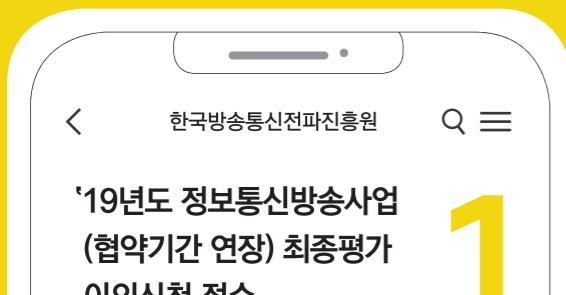
알림

Talk

〈알림 Talk〉에서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기금사업관리본부의 정보통신방송사업 관련 행사 일정을 공유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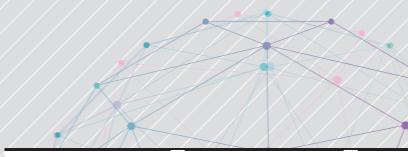
#KCA #정보통신방송사업



'19년도 정보통신방송사업 (협약기간 연장) 최종평가 의의신청 접수

대상 : 2개 협약기간 연장사업(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 구축, 버스 Wi-Fi 확대 구축)
최종평가 결과 통보에 따른 이의처리

일정 : 이의신청 접수(~12.14.),
이의처리 확정(12.21.)



12 DECEMBER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IPA K-Global@Silicon Valley 2020 개최 (12.1-12.4) • NIPA 2020 그랜드 클라우드 컨퍼런스 행사 개최 • TTA SW 국제화 및 현지화 지원사업 이용기업 모집 마감 • KEA 재직자 인공지능(AI) 융합역량강화 온라인 무료교육 모집 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ISA 가명정보 활용 세미나 개최 • EBS 2021년 EBS 초등 프리미엄 학습콘텐츠 검수요원 모집 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IPA ICT InnoFesta 2020 행사 개최 • NIA 2020 디지털정부 클라우드 컨퍼런스 • KISDI 제2회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국제컨퍼런스 개최 • IITP 2020년 SW인재페스티벌 온라인 행사 개최(12.3-12.4) 		
6	7	8	9	10	11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ISDI 국가 인공지능 윤리 기준(안) 공청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ISA 2020 COVID-19 연계 한-코스타리카 사이버보안 및 ICT 협력 웨비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CA 서울스마트미디어센터 신규 입주기업 공모 마감 	
13	14	15	16	17	18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ISA 2021년 제3기 KISA 혁신참여단 모집 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OFAC 2021년도 지역과학 문화 활성화 사업 신규 운영 공모 마감 		

2020 ICW

ICT CYBER WORLD 2020



2020.
11.4.(수)~
12.31.(목)

대한민국의 우수한 ICT기업 400여개사의
제품·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전시관
www.ictcyberworld.com

일정	행사	주관기관
11.4.(수)	2020 ICT스마트서비스 언택트 전시회	KAIT
11.4.(수)	디지털콘텐츠 코리아 엑스포 2020	MOIBA
11.4.(수)	2020 디지털콘텐츠 온라인 전시·비즈니스 로드쇼	NIPA
11.4.(수)~11.5.(목)	K-Global@차이나 2020	KOTRA, NIPA
11.9.(월)~11.13.(금)	자율주행 차량통신기술(V2X)기업 해외진출 지원	TTA
11.9.(월)~11.13.(금)	ICT벤처 Business Day[ICT벤처관]	KOVA
11.10.(화)~11.11.(수)	2021 ICT 산업전망 컨퍼런스	IITP
11.16.(월)~11.20.(금)	ICT기술사업화 페스티벌	IITP
11.23.(월)~11.27.(금)	2020 보안솔루션 온라인 홍보관	KISIA
11.25.(수)~11.27.(금)	2020 사물인터넷 비대면 해외로드쇼	NIPA
11.30.(월)~12.4.(금)	2020 정보통신보조기기 언택트 전시회	NIA
12.1.(화)~12.4.(금)	K-Global@실리콘밸리 2020	KOTRA, NIPA, KIC SV
12.7.(월)~12.11.(금)	2020 정보통신방송사업 온라인 성과보고회	KCA
12.9.(수)~12.12.(토)	2020 차세대 융합 방송솔루션 페스타	RAPA
12.16.(수)~12.23.(수)	2020 ICT 기기산업 페스티벌	KANI, IITP, K-CIA, NIPA, 3DPROM

* 행사주간 일정은 각 기관 희망일이며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가능

주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nipa KAIT IITP NIA TTA KCA RAPA

일자리정책 및 NEWS



01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시행(2006년) 이후
여성 근로자 비율 6.92%,
관리자 비율 10.7%p 증가**

※ 출처
고용노동부
(2020.11.25)

원문보기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1662

- 고용노동부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위원장: 고용정책실장)는 2020년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분석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대상 총 2,486개사(공공 340개사, 지방공사·공단 151개사, 민간 1,995개사)의 2020년 여성 근로자 비율은 37.69%, 관리자 비율은 20.92%로, 제도가 시행된 2006년 대비 각각 6.92%, 10.7%p 증가했다.
- 2016년 제도 시행 이래로 2019년을 제외하고 매년 전체 대상 사업장의 여성 고용률 및 관리자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가 여성 고용 확대에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자리정책

02 —

**지역 노사민정이
연대와 협력으로 일터를
지키고, 상생의 일자리를
만들어 갑니다.**

※ 출처
고용노동부
(2020.12.01)

원문보기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1700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주최하고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정형우)이 주관하는 「지역 노사민정 협력 및 상생형 일자리 성과공유회」가 12월 1일(화), 베스트웨스턴 서울가든호텔에서 개최된다.
- 이번 성과공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표자 등 필수 인원만 참석하고, 행사 전 과정에서 발열 측정, 환기 및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진행되며,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지자체 공무원 및 지역노사민정협의회 관계자 등이 볼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
- 이날 행사는 오전, 오후로 나누어 총 2부로 진행된다.

일자리뉴스

03 —

**일하는 문화 혁신,
내 일이 기대되는 변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1월 24일 10시에 서울 세텍(SETEC)에서 “제5회 일·생활 균형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 5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오늘부터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상황을 고려하여 현장 참관 없이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실시 된다.
- 특히, 올해는 ‘포스트 코로나와 일하는 문화혁신’을 주제로 명사 강연, 이야기 공연, 영상 시상식, 퓨전 국악공연 등이 ‘일생활균형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생하게 중계될 예정이다.
-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위기를 잘 극복하면서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하여 일하는 문화 혁신을 이끌어 나가는 사회적 분위기를 더욱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러분의 일자리를 공유합니다!

#취업성공
#대박기원

01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수행 위촉직
근로자 채용 공고 (12.1-12.16)▶

- 채용분야 : 바우처, 통관·안전, 인력양성, 플래그쉽, 지역·보건, 의료·경비, 장애인
- 채용인원 : 61명

02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20년 체험형 청년인턴
3차 채용 공고 (11.27-12.14)▶

- 채용분야 : 체험형 청년인턴
- 채용인원 : 6명

03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020년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직원 채용 공고 (12.3-12.17)▶

- 채용분야 : 소프트웨어
- 채용인원 : 7명



이번에 채용하는 회사는?

기업명**(주)해커스홀딩스****채용분야
(주요업무)****모바일/웹/분산처리/클라이언트 분야**

- 암호 자산 관련 금융 플랫폼 개발

지원자격

- 신입/경력

자격요건

- 나이/성별/학력 무관

공고기간**~ 2020.12.18.****공고 원문****<http://www.saramin.co.kr> ▶****기업명****(주)원더풀플랫폼****채용분야
(주요업무)****모바일앱 개발**

- 안드로이드/iOS 모바일앱 개발

지원자격

- 신입/경력

자격요건

- 나이/성별 무관, 학력(4년 대졸이상)

공고기간**~ 2020.12.15.****공고 원문****<http://www.saramin.co.kr> ▶**